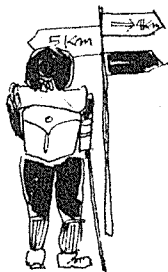


무좀이 있을 때



국 홍 일

무좀이란 백선균(白黴菌)이라고 불리우는 식물성 곰팡이에 의한 피부병으로써 주로 손과 발에 곰팡이가 침범된 병을 말한다.

곰팡이균은 그 생태로 보아 일반적으로 온도와 습도가 높을 때 발육이 왕성함으로써 여름철에 잘 생기며 습기도 많고 피부온도도 비교적 높은 발가락사이나 발바닥에 무좀이 호발할수 있는것도 곰팡이가 자는 생태의 특징이라 하겠다.

곰팡이균은 목욕탕, Pool 장 먼지 많고 습한 방이나 마루구석, 신

발, 양말속, 심지어는 흙속, 개나 고양이 피부에도 살고 있어 조건만 갖추워지면 언제나 사람에게 기생할수 있으며 습기찬 발가락 사이의 피부마찰과 그로 인한 눈에 안보일 정도의 피부상처가 있으면 곰팡이는 곧 사람의 피부에 피고른다.

무좀 곰팡이, 개나 고양이 피부서도 살아

일단 피부에 침범된 곰팡이는 피부, 의 괴외층인 각질층에 살고있으며 각질층내의 「케라틴」이라는 단백질 을 곰팡이가 생성하는 효소의 작용에 의해 소화시킴으로써 피부에 미늘이 일어나 벗겨지기도 하고 곰팡이가 내뿜는 독소로 인해 피부가 빨갱게되기도 하고 물질이나 고름집이 생겨 몹씨 가려워진다.

이러한 무좀의 증상은 곰팡이의 종류에 따라 조금은 다르며 치료도 증상에 따라 혹은 합병증의유무에 따라 달라진다.

보통 곰팡이에 의한 병은 발에 오는 무좀만 생각하기 쉽지만 곰팡이는 머리속 머리털을 침범해서 기계총(頭部白癬), 음낭및 사타구니 양측의 습한 피부를 침범해서 원선(頑癬) 손톱이나 발톱을 침범해서 조갑백선(爪甲白癬), 보통 털이 적은 피부에 도장부스럼(輪癬) 같은 피부병을 일으키기도 한다.

기계총, 도장부스럼도 무좀

무좀의 경우도 곰팡이균의 종류

특집 / 가정요법을 채점한다

에 따라 나타나는 증상도 급성염증을 동반하며 물집이나 고름집이 생기는 형태에서부터 만성경과를 보이면서 발가락사이가 진물으거나 발바닥이 두꺼워지는 무좀등 여러가지 임상적인 증상을 보인다.

무좀환자의 수는 날로 늘어 가고 있고 현대의학은 곰팡이균을 죽이거나 성장을 억제 시킬수있는 도포약이나 복용약들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아직도 끊임없는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좋은 치료법과 양질의 약품이 개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좀 환자들은 자기 병이 잘 치유되지 않고 재발이 잘되며 근본적으로 치료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되는데는 그런대로의 몇가지의 커다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하면 무좀이라는 병은 곰팡이라는 미생물에 의해서 발생되는 피부병임으로 이 미생물의 성장을 억제시키는 몇가지의 방법만 실행하면 무좀은 근치 시킬수 있다는 신념을 갖는것이 중요하다.

항생제 남용도 한개의 원인

물론 요즈음 항생제, 부신피질호르몬제, 항암제등의 광범위한 내부내지는 도포의 부작용으로 곰팡이균의 성장촉진과 무좀환자 자신의 당뇨병, 정신적 긴장으로 인한 수족다

한증, 내분비질환, 대사성질환등의 미생물에 대한 저항이 약화될수 있는 조건, 직업적인 환경 혹은 기후적인 조건등은 무좀이 잘 낫지않고 오래가며 재발될수있는 원인들이라 하겠으며 또 아무리 좋은 무좀치료연고제라 할지라도 2-3주일간의 계속적인 도포와 발톱이나 손톱 밑에 잠복되어있는 곰팡이까지 완전히 없여져야한다는 사실도 무좀을 치료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손, 발에 생긴것이 모두 무좀은 아니다

손이나 발에 피부병이 생겼다고 해서 전부가 무좀은 아니다. 접촉성 피부염, 건진, 한포진상습진, 농포진, 습진등 수많은 피부염이 무좀과 엇비슷하게 발생함으로 이것도 문제이고 또 무좀이 많은것 만큼이나 시판되는 무좀약의 종류도 수백종에 달하고 그 뿐만아니고 너무나 많은 소위 단방약이나 민간요법이 전래되고있어 그야말로 무좀에는 모든 사람이 의사인양 일가견을 갖는 사람이 많은것도 무좀에서의 탈이고 문제점이다. 무좀에 바르는약은 또 대부분이 피부를 자극하거나 과민성이 있는것들이여서 새로운 습진을 유발하기도하고, 무좀의 피부상처를 통해 화농성세균의 2차감염이 쉽게와서 발이 부어오르고 몹시고통스러울때가 많으며 이런경우는 아무리 좋은 무좀치료약을 바르거

특집 / 가정요법을 재점한다

나 먹어도 소용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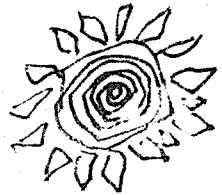
무좀이 전래되어온 가정요법도 수십종에 달한다. 심지어는 독한 양젓물이나 식초에 환부를 당구게 하는 방법도 있다고한다.

이런 민간요법일수록 부작용은 많고 위험성이 따른다. 가정 요법중 쉽게 할수있고 좋은 방법은 1/5,000 - 1/10,000의 과망산간加里용액에 다 환부를 하루에 2-3회씩 1회에 20-30분씩 담그게 한후 그때마다 카라민로손을 바르는 정도의 국소요법이 추천할수있을만한 가정요법이며 쉽게 약을 구할수있다는 생각하나 만으로 아무런약이나 내복하는것은 삼가해야되겠으며 특히 무좀에 특효약(예를 들어 구리세오폴빈)은 부작용이 많은 약으로써 전문적인 지시에 의해 복용하는 것이 좋다.

무좀은 반듯이 낫는 병이다. 걸리기 전에 예방으로 손발을 깨끗이 씻고 잘말리는 일상생활과 면양말을 신고, 통풍이 잘되는 신발을 신고 가능하면 아침 저녁 발가락사이에 무좀예방가루같은것을 뿌려두는 것도 한 방법이라하겠다.

(필자=이대부속병원 피부과장·의박)

더위를 먹었으론 때



金 穆 鉉

흔히 여름이 되면 식욕부진 및 소화불량을 호소하는 환자가 많아지며 식사의 절대량이 부족하면 기운이 없고 안색은 나빠진다.

이때 일반적으로 “더위를 먹었다”고 하며 이런 현상은 성인뿐 아니라 한창 발육기에 있는 어린이가 들에게서 특히 많이 보게되어 주부들의 근심을 더하게 한다.

소화기능 및 식욕은 정신 상태와 긴밀한 관계가 있어 하절기에 불쾌지수가 올라가면 소화기능이 저하됨은 당연하다 하겠다.

특집 / 가정요법을 채점한다